

2025 전주 드론축구 월드컵 전초전 '팡파르'

'FAI 월드 드론 마스터즈 대회' 전주서 개최

드론 레이싱서킷·축구볼 LED 뮤직쇼로 화려한 개막 세계 최초의 '터널 형태 레이싱 코스' 큰 호응 얻어

전주시가 국제항공연맹(FAI)가 주관하는 세계적인 드론스포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면서 오는 2025 전주 드론축구월드컵 개최를 향한 힘찬 신호탄을 쏘았다.

시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전주월드컵보조경기장과 드론축구 상설체험장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강동화 전주시의회 부의장, 브루노 델라 FAI 드론레이싱분과위원장 등 내외빈과 국내·외 선수들, 전국 각지의 가족 단위 관람객, 초·중·고, 대학생 등 약 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전주 FAI 월드 드론 마스터즈 국제대회'를 개최했다.

전주시와 FAI가 공동주최하고 한국 모형항공협회, 대한드론축구협회, 넥스트브레인, SPOTV가 공동주관한 이번 대회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산하의 국제항공연맹(FAI)에서 주최하는 국제 드론레이싱 경기로, 세계항공스포츠를 관장하는 FAI가 주최하는 마스터즈급 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첫날 개막식에서는 경희대 타이거즈팀의 태권도 시범과 라스트 포워드 팀의 비보잉 댄스로 이어지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가을밤 하늘을 배경으로 한 레이싱서킷과 드론축구

볼의 화려한 LED 뮤직쇼가 펼쳐져 보는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후 20개국 80여명에 이르는 해외 레이싱 선수들과 전국의 드론축구 선수들이 입장해 본격적인 대회의 시작을 알렸다.

이번 대회는 크게 전주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에서 열린 공식 경기인 '드론레이싱'과 지난 4월 FAI 시범종목으로 공식 채택된 '드론축구 경기'의 2개 부문으로 운영됐다.

메인이벤트이자 공식경기인 드론레이싱은 선수가 드론을 조종해 다양한 장애물이 있는 레이싱트랙을 완주할 시간을 바탕으로 순위를 가리는 신개념 스포츠종목으로 '공중에서 펼쳐지는 F1'으로 불린다. 이 경기는 1일과 2일 이틀간 코스적응과 예선전이 기록경기방식으로 진행됐으며, 3일 본선경기에서는 예선을 통과한 32명의 선수들이 토너먼트 방식으로 자웅을 겨뤘다.

특히 드론레이싱에서는 '세계 최초의 터널 형태 레이싱 코스'가 큰 호응을 얻었다. 기존 코스와 달리 터널형 코스의 경우 LED라이트가 장착된 프레임이 빛의 터널 형태의 트랙을 이뤄 관람객이 초근접 거리에서 드론의 속도감을 생생히 느낄 수 있었다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전주월드컵보조경기장과 드론축구 상설체험장에서 열린 FAI 월드 드론 마스터즈 대회'에 김승수 전주시장과 강동화 전주시의회 부의장 등 참석자들이 드론축구공을 들고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또한 시범종목으로 진행된 '드론축구' 경기 중 마지막 날 친선경기의 경우, 현존하는 유일한 '팀' 단위 드론 레저 스포츠인 드론축구답게 국내 선수들이 국적을 불문하고 하나가 돼 개인간 경쟁인 드론 레이싱과는 또 다른 묘미를 선사하기도 했다. 현재 국내 16개 지부 및 250개 드론축구 선수단이 창단되고, 일본·중국·영국·말레이시아 등 드론축구팀이 창단되는 등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 4월에는 드론

축구의 가능성을 인정받아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FAI 총회에서 전주시의 드론축구와 규정이 시범종목으로 정식 채택, 약 2년간 다양한 국제무대에서 선보일 경우 정식종목으로 채택될 가능성도 열렸다.

이외에도 시는 두 경기장을 잇는 공간을 활용해 미니드론축구, 드론경주 등 드론스포츠를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체험부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치맥피크닉 공간' △부대경기로 드론거리 서로 충돌하여 격투하는 '드론클래쉬' 등 대회 3

일 동안 관람객을 위한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했다.

시 신성장산업본부 관계자는 "지난 6월 드론축구 부품 해외수출 200만 불을 달성하는 등 드론축구를 포함한 드론 레저스포츠가 오라과 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좋은 콘텐츠임을 확인했다"면서 "이번 대회가 드론축구를 비롯한 드론 레저스포츠의 매력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그 저변을 확대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 남부권 주민 위한 한바탕 체육센터 개관

평화동 일원에 다목적 실내체육시설 등 갖춰

생활체육시설이 부족했던 전주 남부권에 주민들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위한 대규모 체육시설이 문을 열었다. 이에 따라 평화동 등 남부권 주민들이 집과 가까운 곳에서 사계절 내내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전주시는 지난 1일 평화동 한바탕 국민체육센터(평화동 2가 321-1번지 일원)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 내·외빈, 평화동 주민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내체육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조성된 국민체육센터의 개관식을 가졌다.

한바탕 국민체육센터는 체육진흥기금 30억 등 총 사업비 115억9300만원이 투입돼 1만2377㎡부지에 지하1층과 지상3층, 연면적 2894㎡ 규모로 지어졌다.

시설은 실내체육관과 체력측정실, 체력단련실, 에어로빅실, 주민문화공간(당구장·탁구장) 등을 갖춘 실내

다목적체육시설과 농구장, 족구장 등 실의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다목적체육시설과는 달리 체육관 외부 조경공간 및 광장 둘레로 조성된 약 500m의 산책로가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국민체육센터 개관으로 전주 남부생활권 주민들의 욕구가 해소되고, 시민들이 건강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평화동 한바탕 국민체육센터가 개관하면서 평화동과 삼전동, 동·서서학동 등 남부권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어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활체육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생활권 주변에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안전하게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노후화된 시설물을 보수·보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의료급여사업 기초지자체 부문 '우수'

전주시가 의료급여 수급업무를 잘 수행한 기초지자체로 평가됐다.

시는 지난달 31일 부산광역시에 열린 보건복지부 주관 의료급여 관계기관 워크숍에서 '2019년 의료급여사업 기관평가'의 기초지자체 부문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부적정 장기입원자의 요양기관을 방문해 적극적인 상담과 사례관리, 지도점검을 통해 전년 대비 진료비 절감을 추진하고,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재가의료급여 사업을 시행하는 등 의료급여 재정 건전화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주에는 현재 2만4000여명의 의료급여 수급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10명의 의료급여 관리사들이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관리에 대한 교육 및 상담 △신규 수급자 교육 및 관리 △외래이용자 사례관리 △장기입원자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통해 의료급여 수급자들을 상담·관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는 올해부터 시작된 재가의료급여사업을 통해 기존 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에게 돌봄, 식사, 이동지원 등 재가서비스를 제공해 내 집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며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으로 시범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장기전 전주 생활복지과장은 "집중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적절한 자격관리 및 의료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합리적인 의료이용 및 건전한 의료비 사용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안전한 생활체육시설로 '환골탈태'

전주시, 효자야구장 개선 개장식과 함께 시정배 동호인야구대회도 개최

전주시 효자야구장이 인조잔디가 깔리고 펜스와 선수보호용 매트가 설치된 안전한 경기장으로 탈바꿈됐다. 이에 따라 동호인 야구선수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경기를 치를 수 있게 됐다.

전주시는 지난 2일 전주승화원 인근 효자야구장(효자동3가 990-1 일원)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시의원, 야구동호인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효자야구장 개장식 및 제10회 전주시정배 동호인야구대회를 개최

했다.

특별교부세 5억원 등 총 9억원이 투입돼 새로 조성된 효자야구장은 기존 부지(7800㎡)에 관람객의 안전을 위한 12m 높이의 펜스가 설치됐으며, 선수보호용 매트가 설치되고 인조잔디가 조성돼 명실상부한 생활체육 야구장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

인조잔디 야구장 준공으로 시민과 야구 동호인들이 상시 야구경기를 즐길 수 있어 지역 생활체육 야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전국 및 도 단위 규모의 동호인 야구대회도 유치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김윤상 기자



지난 1일 예수병원에서 설대위 기념 암센터 개소식이 열렸다.

예수병원, 설대위 기념 암센터 개소·현판 제막식

예수병원은 지난 1일 예수병원 유지재단 김승수 총무이사과 김철승 병원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설대위 기념 암센터 개소식과 현판 제막식을 가졌다.

설대위 기념 암센터는 기존 철골주차를 철거한 부지에서 지난해 9월에 기공식을 한 후 이날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넓고 쾌적한 외래, 진료, 입원 및 근린생활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지하 1층은 환자와 보호자, 직원들의 편리한 병원 생활을 위한 식당과

카페 등 다양한 편의 시설이 자리하고 있다. 1층은 기존 응급센터를 전제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의료기관의 응급의료센터 중에서 일반병상 수가 전국 3위 규모 수준이다.

2층은 그동안 본관에서 외래진료를 해 왔던 일반외과, 상부위장관외과, 대장항문외과, 유방갑상선외과, 혈관이식외과 등 외과와 흉부외과, 비뇨기과가 새롭게 단장한 암센터로 이전했고 편의점을 비롯한 근린생활 및 로비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3층에 위치한 30병상은 4개 병상 규모의 넓고 쾌적한 시설을 갖춘 병동으로 1인실 57개의 음압병실은 격리를 필요로 하는 결핵, 홍역, 수두 등 감염성 질환 환자의 입원 치료를 전담한다.

특히 이번 설대위 기념 암센터 완공으로 예수병원 제1주차장과 본관 로비가 직접 연결되어 환자와 내원객의 이용 편리성과 접근성이 크게 향상됐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권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윤상 기자

피부 임파암 환자 치료

전북대병원 이선영 교수 논문 SCIE급 국제학술지 표지 장식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건)은 방사선종양학과 이선영 교수와 피부 임파암 환자의 방사선치료에 관한 논문이 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SCIE)급 국제학술지 표지논문으로 선정됐다

고 지난 1일 밝혔다. 표지를 장식한 논문은 '피부 직접치료요법에 불응성인 초기 및 진행단계 피부 T세포 림프종에 대한 국소화 된 기존 방사선 치료의 치료결과분석'에 관한 것으로 중앙 관련 국제학술지인 Dermatological Sinica 9월호에 게재됐다.

피부 임파암은 흔히 발생하는 암종은 아니나 한 번 발생 시 재발도 흔하고 특히 국소적으로 발생 시 전신 항암 주사치료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암종은 아니다.

이번 논문에서는 피부과적 광선요법에 실패하거나 여러 번 재발이 되어 시 다른 치료요법에 불응성인 피부 임파암의 치료의 경우 국소방사선 치료가 병변의 제어에 있어 효과가 있다는 것을 다년간 시행한 방사선 치료결과를 통해 분석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덕진구청, 고정형 CCTV 활용

불법 주·정차 단속 오늘 확대

덕진구청(구청장 김종업)에서는 도심내 원활한 교통소통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고정형 무인단속시스템 CCTV' 4대를 추가 설치해 오늘부터 단속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설치한 장소는 전주시 예교시내 내 KCC스위천 정문, KCC스위천 근린생활시설 주변, KCC수위천 후문 주변, KCC스위천 상가 주변이다. 불법 주·정차로 차량 통행 차질과 커브길 교통사고 위험 등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구간으로 차량안전행동에 주의가 필요한 곳이다.

단속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20분(출퇴근시간은 10분)이상 주차된 차량이 단속대상이다. 다만, 곡각지점, 인도, 횡단보도, 안전지대, 버스승강장, 소화전 등 안전위험 지역에 불법주·정차 차량은 즉시 단속된다.

이번 CCTV 4대가 추가 설치로 덕진구청은 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 98대를 운영하게 되며, 그 외 지역은 이동형 CCTV 단속차량을 활용하여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소통 및 안전위험지역을 중점적으로 계도·단속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광고주가 직접 신청'

현수막게시대 접수 방식 변경

전주시실공단(이사장 정성환)은 2020년부터 광고주가 직접 광고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접수방식을 변경한다고 1일 밝혔다.

공단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 시스템 구축을 위해 옥외광고업체의 대행신청을 폐지하고 이 같이 시스템을 바꾼다. 또 현수막게시대 프로그램 회원 가입 시 핸드폰(아이핀)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고 가상계좌 결제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이용 편의성도 한층 높이기도 했다. 공단은 이달 말까지 현수막게시대 프로그램 홈페이지 리뉴얼과 가상계좌 도입 등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정성환 이사장은 "현수막게시대 접수방식의 개선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공정한 경쟁기회가 제공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공단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